

포스트모더니즘—후기자본주의의 급진적 문화비판 논리

Postmodernism — the radical culturecritical logic of late capitalism

이성백*

포스트모더니즘은 후기자본주의의 지배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후기자본주의의 급진적인 문화비판 논리이다. 비판이론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합리적 핵심은 현대시민사회에 문명적 병폐와 억압을 초래하고 있는 경제적, 도구적 합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모더니티의 논리에 대한 비판에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존재의 미학’, 즉 미학적, 문화적 가치를 포스트모더니티의 논리로 제시한다.

리오타르는 모더니티의 논리인 ‘수행성 원리’를 포스트모던적 조건으로 잘못 정식화함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 논의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정보화, 지구화 등 탈산업주의는 모더니티 논리의 연장이고,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과 대립되는 경향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적 잠재력은 21세기 변화된 현실 조건에 맞추어 문화사회의 기획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포스트모더니즘, 마르크스주의, 탈산업주의, 모더니티, 포스트모던 도시

1.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의 맹점

“내 아버지는 누구란 말인가?” 리하르트 바그너의 한 오페라에 나오는 이 대사는 어릴 적부터 자기의 친부가 누구인지 괴로워해왔던 바그너

* 이 논문은 2009년도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교수(splee@uos.ac.kr)

의 정신적 고뇌가 표현된 것이라고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체성 물음이 1980년대 이후 철학의 새로운 흐름으로 관심을 끌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서구 철학을 주도하고 있는 석학들이 개입하여 장기간에 걸쳐 대대적인 논쟁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은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한 채 주변만 맴돌면서 이렇다할 이론적인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가의 한 사람인 프레드릭 제임슨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새로운 사회비판론적인 개념과 관점들을 후기자본주의의 문화논리로 폄하해 버렸다. 더욱이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이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옹호하는 학자들에게도 책임이 크다. 이들 스스로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적 정체성, 즉 본질적 성격을 선명하게 개념화하지 못하였다.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은 프랑스와 리오타르가 정식화해 놓은 것인데, 이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 규정에서 리오타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본질적 핵심을 놓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포스트모더니즘이 비판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모더니티의 논리를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본 논리로 제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적 혼란은 이의 적용을 이론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개별적인 연구분야들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20세기 후반 들어서 현대 시민사회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각 개별적인 연구분야들에서는 이 변화를 해명하려는 이론적 혁신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도시연구가 이 이론적 혁신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오고 있는 탁월한 실례라 할 수 있다. 지구화, 정보화, 포스트모더니즘을 위시하여 사회역사적 변화의 제 경향과 이론적 흐름들을 포괄적으로 고찰하여 이로부터 현대 도시의 변화를 설명하는 새로운 도시이론들이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연구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개념적 불명확성은 마찬가지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본질적 성격과 다른 담론들과의 개념적 차별성이 충분히 파악되지 못한 상태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도시연구의 이

론적 혁신 작업 속에서 사회비판이론으로서의 잠재력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논의에 생산적인 진전이 있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것은 그것의 이론적 정체성의 선명화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티의 무엇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모더니티를 넘어서고자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그 ‘탈(post)’이 함의하는 이념적 원리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되어야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념적 선명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20세기 후반부터 현대시민사회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시도로 대두된 여러 이론적 경향들, 탈산업사회론, 지구화론, 정보사회론 등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관계와 차별성을 계보학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특히 이를 통해 그동안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던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비판이론으로서의 ‘합리적 핵심’을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포스트모더니즘의 본질적 성격이 해명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여러 비판들이 잘못 짚었던 부분들이 해소되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새로운 급진적인 비판적 관점을 현실 설명력을 잃어 ‘위기’에 처해있는 기존의 급진적인 사회비판이론들과 접합시킴으로써 21세기의 변화된 현대시민사회의 현실에 부응하는 급진적 사회비판이론을 재구성해 볼 수 있는 이론적인 논의의 지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에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마르크스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이 그동안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화합의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마르크스주의의 포스트모더니즘 비판

포스트모더니즘은 여러 사상적 흐름들로부터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

켰다. 그 중에서도 마르크스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대대적인 비판을 제기하였다. 마르크스주의가 포스트모더니즘이 낡은 현대성의 담론으로 지목한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되었기에 이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반격은 프레드릭 제임슨에 의해 시작된다. 이어 마르크스주의 도시정치경제학을 대표하는 데이비드 하비가 포스트모더니즘을 역사유물론적 관점에서 해부했다.

프레드릭 제임슨은 레닌주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등의 위기 이후 서구사회에 새로이 출현하고 있는 문화적 현상을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이해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을 제임슨은 ‘미학적 대중주의’로(제임슨, 1989: 140) 특징짓는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또는 상업문화의 구분을 거부하고 텔레비전 연속물, 할리우드 영화, 광고와 모델 등 통속적인 대중문화의 ‘타락한’ 풍경에 매료되어 있다. 제임슨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이해는 그가 포스트모더니즘을 아도르노가 강력하게 비판했던 문화산업과 동일시한다는 데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아도르노와 프랑크푸르트학파에 이르는 모더니즘의 이론가들이 그토록 열렬히 비난했던 문화산업의 형식, 범주, 내용이 주입되어 있는”(제임슨: 141~142) 새로운 종류의 문화현상에 다름 아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대중의 소비욕망을 사로잡아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하고, 대중의 비판적 의식을 마비시키는 문화적 지배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이다.

제임슨은 포스트모더니즘을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단계에 연관지워 설명한다. 자본주의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맞추어 문화도 시대구분을 한다. 자본주의의 세 단계는 시장자본주의, 독점단계 또는 제국주의 단계, 그리고 다국적 자본주의나 소비 자본주의로 불리기도 하는 현 단계의 자본주의인 후기자본주의이다. 그리고 제임슨은 자본주의의 세 단계에 조응하여 “리얼리즘,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의 단계로 문화적인 시대구분”(제임슨: 179)을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퇴폐적이고 음울한” 후기자본주의의 문화논리로 자리매김 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진리의

순간’은 최초로 나타난 유별나게 퇴폐적이고 음울한 바로 이 전 지구적 전체 공간이라는 점을 수궁해야 한다”(제임슨: 194).

제임슨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비판적 거리’(제임슨: 190)가 소멸되었다고 비판한다. 이전의 자본주의에서 문화 영역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에 대해 일정한 비판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후기자본주의에 와서 문화의 자율적 영역이 와해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임슨은 포스트모더니즘을 후기자본주의의 문화적 지배이데올로기로만 규정하고, 후기자본주의의 문화산업과 대중문화에 대한 그것의 비판이론적 잠재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이비드 하비는 제임슨보다 더 세밀하게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다. 하비는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을 역사유물론인 방법론에 따라,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의 정치경제적 체제의 작동과의 연관 속에서 해석한다. 도시 정치경제학의 전문가인 하비는 후기자본주의를 자본주의의 최근의 변화와 관련된 제 이론적 논의들을 끌어들이어 더 상세하게 해석한다. 하비는 자본주의 경제의 최근의 변화를 ‘포드주의에서 유연적 축적으로’ 개념화한다. 1965~1973년 시기에 포드주의와 케인즈주의는 대량생산 체제에 대한 대규모의 장기적 고정자본 투자의 ‘경직성’에 의해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이 포드주의의 경직성에 대한 대응으로 ‘유연적 축적’이 등장한다. 생산과 경영 방식, 노동과정, 제품과 소비패턴 등 경제의 전 영역에 걸쳐 유연화가 이루어진다. 또한 유연적 축적은 자본주의 세계의 새로운 ‘시·공간 압축’도 포함한다.

포드주의로부터 유연적 축적으로의 이행과 결부시키면서 하비는 1970년대 이래 규범과 습관, 정치적·문화적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고찰한다. 하비는 이를 ‘집단적 규범 및 가치’로부터 ‘훨씬 더 경쟁적인 개인주의’로의 이행으로 특징짓고 있다. “보다 유연한 자본운동은 포드주의 아래에서 길러진 한층 경직된 가치들이 아닌 것들, 즉 모던한 생활의 새로운 것, 유동적인 것, 순간적인 것, 일시적인 것, 그리고 우연적인

것들을 강조한다. ... 엄청난 개인주의가 포드주의에서 유연적 축적으로의 이행에 있어 필요조건으로(비록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기능한다”(하비, 1994: 219). 유동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강조하는 ‘개인주의’가 바로 유연적 축적으로의 이행에 상응하는 포스트모던적인 문화형태이다. 이런 식으로 제임슨과 유사하게 하비도 포스트모더니즘을 후기자본주의라는 막연한 규정보다 더 현실적이고 분명하게 규정된 자본주의의 새로운 이행 단계로서 유연적 축적에 조응하는 문화형태로 파악한다.

그런데 하비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자본주의의 특정 단계에 조응하는 문화 형태만으로 설명하는 제임슨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포스트모더니즘이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해방적인 정치를 향한 근본적인 전진의 일부”로 사용될 수도 있고, “유연적인 노동과정으로의 전환은 민주적이고 고도로 탈중심화된 노동관계와 협동적인 노력을 알리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하비: 425)이 될 수도 있다고 하비는 인정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종 및 성에 관한 문제, 식민지 민중과 억압된 소수민족, 생태문제 등에 대해 구좌파가 반동적이었던 데에 반해, 신좌파가 진보적이었음을 인정한다. 다만 포스트모던적인 신좌파가 프롤레타리아트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의 급진성과 진보성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하비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이와 양립할 수 없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평가를 내린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추구하는 ‘정치의 미학화’는 나치와 같은 반동적인 정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하비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지향점이 정치의 미학화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모더니즘에서는 도시공간을 ‘사회적 기능들의 부수현상’으로 여기는 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기능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도시공간을 해방시켜, 그것을 모든 단순한 역사결정론과는 독립적인 수사적·예술적 전략들을 포함하는 자율적인 공식체계’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인다”(하비: 370). 그리고 하비는 이 정치의 미학화를 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실례로 푸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미 나치즘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었듯이 이러한 정치의 미학화는 민족주의적 정치를, 그리하여 불가피하게 반동적인 정치를 함의한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심미화된 공간성이라는 반동적인 정치를 제외하고서 달리 탈출구가 있을까?”(하비: 371)

과연 제임슨과 하비의 포스트모더니즘 비판은 설득력이 있는가?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 그것의 문제점과 한계를 제대로 짚어내고 있는가? 포스트모더니즘은 후기자본주의의 문화논리에 불과한가? 미시권력, 판옵티콘과 같은 푸코의 개념들은 그것이 담고 있는 사회비판적인 함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후기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 문화논리에 불과한 것인가? 사회비판적인 잠재력을 인정하지만 결국 불가피하게 반동적인 정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마르크스주의의 포스트모더니즘 비판은 켈리니코스의 “포스트모더니티라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켈리니코스, 1994: 23)라는 말 속에 은연중 표출되고 있듯이, 포스트모더니즘을 충분히 ‘알아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알아들으려 하지 않았다.

3. 리오타르의 『포스트모던적 조건』의 오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이들을 크게 비난할 일은 못된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일이 이렇게 된 데에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스스로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적 정체성에 대해 혼란에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포스트모더니즘을 하나의 사조로 유행시키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리오타르가 포스트모던적 조건을 정식화하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모더니티로부터 이에 대립하는 포스트모더니티의 차이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모더니티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포스트모던적 조건으로 제시해 버리고 말았다. 리오타르는 『포스트모던적 조건』이란 책의 부제를 “정보사회에서의 지식의 위상”이라고 부쳐 놓

고 있는 데에서 드러나듯이 정보사회와 포스트모던적 조건을 논리적으로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고찰하게 되겠지만, 정보사회는 모더니티의 논리에 근거한 개념으로서 포스트모던적 조건과는 대립되는 것이다. 리오타르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유행시키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포스트모던적 조건을 정식화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포스트모던적 조건』에서 제시되어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의는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일반적인 정의로 널리 받아들여져 왔는데, 이제까지 아무도 리오타르의 이 정의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리오타르가 모더니티와 포스트모더니티를 나누는 첫 번째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거대 이야기 대 작은 이야기의 구분이다. 거대 서사란 인류의 역사나 사회를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려는 ‘총체성 이론’으로 예를 들면 “정신의 변증법, 의미의 해석학, 사유 혹은 노동하는 주체의 해방, 부의 발전”(리오타르, 1992: 13)과 같은 것이다. 리오타르에 따르면 탈산업사회와 포스트모던적 문화에서 “거대 이야기는 그 신뢰성을 상실해 버렸다”(리오타르: 89). 따라서 이제 이론적 연구는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설명 방식을 포기하고 일상적이고 국지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비단 리오타르의 거대 서사와 작은 이야기의 구분만이 아니라, 거대 담론에 대해 미시 담론의 강조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푸코의 미시 권력론 또한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되며, 데리다와 들뢰즈 등 거의 모든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에 공통적이다. 따라서 거대 서사와 작은 이야기의 구분은 포스트모던적 조건으로서 잘못된 것은 없다.¹⁾

문제는 리오타르가 정보사회에서의 지식과 정보의 기본원리로 제시하고 있는 ‘수행성 원리(principle of performativity)’에 있다. “원칙상 과학적 메

1) 물론 거대 담론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미시 담론만을 강조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적 경향은 다른 논쟁의 대상이다. 이미 이에 대해서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비판적 논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시지에 대해 수화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논쟁의 일부인 증명 제시는, 이렇게 해서 진리가 아닌 수행성, 즉 투입/산출의 최상의 관계가 그 쟁취 목표인 다른 언어 게임의 통제를 받는다. 국가 그리고/또는 기업은 이 새로운 쟁취 목표를 정당화하기 위해 관념적 또는 인본주의적인 정당화 이야기를 내던져 버린다. 오늘날의 투자자들의 담론에서 믿을 만한 유일한 쟁취 목표는 권력이다. 학자, 기술자, 기계 등을 사는 것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서이다”(리오타르: 105). 정보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자본이 되는 사회로서 지식과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모든 종류의 정보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 기업, 혼합 사회에 의한 연구 자금의 분배는 권력 증대라는 논리에 따른다. 비록 간접적일지라도 체계 수행의 극대화에 기여할 수 없는 연구 분야들에게는 자금 유통이 차단되고, 한물 간 것으로 간주된다”(리오타르: 107). 리오타르가 정확히 지적하고 있듯이 ‘수행성 원리’에 부합하는 특정한 형태의 정보만이 증가하고, 자본의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정보나 지식은 배제된다.

수행성 원리에 따른 지식의 위상의 변화는 정보사회적 조건으로서 적절한 지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정보사회적 조건을 포스트모던적 관점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이다. 리오타르는 사회는 탈산업사회(정보사회)로, 그리고 이 탈산업사회에 상응하는 문화를 포스트모던적 문화로 이해하고 있다(리오타르: 17).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수행성 원리가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원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현대사회의 본질적 성격으로서의 모더니티를 리오타르가 오인한 데에 기인한다. 리오타르가 포스트모던적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더 일반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념적인 기초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총체적 비판이다. ‘이성의 거부’는 푸코, 들뢰즈 등을 위시하여 대부분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공유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공약수이다. 이 이성의 거부야말로 포스트모던적 조건의 핵심이

다. 이성과 합리성을 포스트모더니즘이 문제 삼는 이유는 이성과 합리성이 현대 사회와 인간의 현대적 삶 속에서 억압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막스 베버가 규명했듯이 모더니티의 본질은 합리성에 있고, 현대 사회의 전개 과정으로서의 현대화(modernization)는 비합리적인 것을 더 합리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사회적 합리화(rationalization)이다. 이 합리화가 사회적 억압성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이 합리성을 문제 삼는 것이다. ‘이성적 사회’에서 초래되고 있는 반인간주의적 억압성과 야만성이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합리화란 더 적은 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을 가져오는 효율성(utility)의 증대이다. 위의 인용에서 리오타르가 수행성을 ‘투입/산출의 최상의 관계’라 규정하고 있듯이, 수행성은 효율성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따라서 리오타르가 포스트모던적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행성 원리’는 모더니티의 논리이다. 리오타르는 정보화, 지구화 등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모더니티의 조건을 포스트모던적 조건으로 제시하는 결정적인 오류를 범했다. 수행성 원리는 정보화, 지구화를 포괄하는 탈산업주의의 경향에 연속되고 있는 모더니티의 논리이지 포스트모더니즘의 논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오타르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탈산업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이 의미상 서로 통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혼용되고 있고 특히 이 두 개념의 혼용 속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본래적 의미가 희석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출현하여 서로 엮이는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은 탈산업주의를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근본적으로 탈산업주의와 대립되는 이념적 경향이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제대로 인지되지 못하고, 20세기 후반기 이후 일어나고 있는 사회변동에 대한 여러 논의에서 두 개념이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지구화, 정보화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초래된 변화들이 무분별하게 포스트모던적인 것으로 묘사되었다. 보수주의적인 정보사회 담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프랑크 웨스터도 포스트모더니즘을 정보사회의 문화적 논리로 위치시키고 있다(웨스

터, 1997: 267~314). 최근 들어 지구화 시대 좌파의 새로운 담론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안토니오 네그리도 동일한 혼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국』에서는 탈산업주의의 최근의 버전의 하나인 지구화가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지구적 신자본주의)을 정당화하는 보수적 담론인 지구화론이 아무런 비판적인 여과와 재평가 과정도 없이 포스트모던적인 진보적 담론으로 수용되고 있다.

도시연구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 개념이 명확하게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 포스트모던 도시론을 이론화한 에드워드 소자는 포스트모더니즘을 20세기 후반 이후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변화들을 통칭하는 최고 상위 개념으로 상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을 여섯 가지 담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① 산업 생산의 조직과 기술의 측면: 포스트포드주의와 유연적 생산체제, ② 지구화 과정: 자본의 지구화, 세계 도시의 지구적 체계의 형성, 글로벌리즘적 도시화, ③ 도시형태의 구조전환: 도시의 탈중심화와 재중심화, 도심의 주변부화와 주변부의 중심화, ④ 도시의 계층구조: 계층구성의 파편화, 차별, 양극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불평등의 심화, 직업과 소득의 양극화, ⑤ 도시의 통치성: 사회적 불안정성, 범죄와 폭력의 증대로 인한 도시의 통제불능성 심화,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는 판옵티콘 내지 ‘감옥 도시’로의 전화, ⑥ 도시 공간성의 확장: 물리적, 경험적 공간을 넘어서 하이퍼리얼리티 내지는 사이버스페이스의 출현(Soja, 1995: 129~137). 소자는 이 여섯 가지를 “20세기 마지막 4분기 동안 도시들에서 일어난 주된 변화들의 종합적 기술”(Soja: 125)이라 제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여섯 가지 중에서 대부분은 포스트모던적인 특징과는 무관하며, 이는 소자가 푸코의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적 관점을 표면적으로만 보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번째 담론인 불안정, 폭력, 탈법 등에 대처하기 위해 도시 전체에 감시와 통제의 기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감옥 도시(carceral city)’는 포스트모던적 도시의 특성이 아니다. 현대 도시에서의 감시와 통제의 강화는 현대의 합리화과정이 강화된 데에 기인한다.

감옥 도시론이 의거하고 있는 푸코의 판옵티콘과 미시권력론은 모던적 특성이지 포스트모던적 특성이 아니다. 판옵티콘은 모더니티의 억압성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푸코가 포스트모던적인 해결책으로 찾은 것은 ‘자기에의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소자의 여섯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 “20세기 마지막 4분기 동안 도시들에서 일어난 주된 변화들”은 포스트모던적인 것으로 특징지을 수 없다. 그것들은 포스트모던적인 경향뿐만 아니라, 지구화, 축적체제의 유연화, 정보화 등 이와 상이하고 대립되는 여러 경향들의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이다. 서구에서도 소자의 포스트모던적 도시연구가 현재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데에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더 일반적이라고 한다(한주연, 2003: 197).

한국에서도 199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이 본격화되었다. 도시연구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던 도시에 대한 이론적 관심과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명래의 책, 『현대 사회의 도시론』에 그동안 서구에서 진행되어온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던 도시론에 대해 어떤 이론적 논의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아울러 이 책은 서구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던 도시론을 둘러싼 논의들이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도 또한 보여주고 있다. 프레드릭 제임슨의 인식적 지도 그리기에 비유한다면, 서구의 현재의 포스트모더니즘을 둘러싼 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길로 가야하는지를 아직까지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모던 도시론과 포스트모던 도시론을 비교해 놓고 있는 도표는 매우 흥미로운데(조명래, 2002: 192), 이 도표는 소자의 포스트모던 도시의 여섯 가지 담론 구분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모던적 도시와 포스트모던적 도시의 차이를 구분해 놓고 있다. 그런데 이 도표도 1970년대 이후 서구 도시들에서 일어난 주요 변화들을 모두 포스트모던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서 소자와 기준 설정과 유사하며,

따라서 소자의 포스트모던 도시론이 안고 있는 한계점을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을 어떻게 개념적으로 규정하고, 그 장점과 한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물음은 포스트모더니즘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할 때 쉽게 넘어서지 못하는 곤혹스런 지점이다. 한편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근대적 주체 개념 비판, 푸코의 미시권력론, 들뢰즈와 가타리의 욕망, 탈주, 차이의 정치학은 현실 비판의 새로운 관점으로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합리성의 전복이란 포스트모더니티의 기본적인 문제설정은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을 거부하고 모더니티의 재구성을 주장하는 입장들인 하버마스, 기든스 등의 관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한국의 도시연구에서도 이 물음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엿보이는데,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티의 재구성을 추구하는 입장들 간의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차이의 정치학’과 ‘의사소통행위’가 서로를 보완한다고 본다. 즉, ‘차이의 정치학’은 보편성에 기초한 합의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으며, 형식적 화용론에 기초한 의사소통행위는 무정부주의적인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해 줄 수 있다”(이상헌, 2006: 35). 그런데 이러한 이론적 종합의 시도 속에서 이상헌은 모더니티를 넘어선다는 의미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기각하고 기든스의 견해를 받아들여 포스트모더니즘이 새로이 제기하고 있는 관점들을 ‘모더니티의 급진화’로 재설정한다. “포스트모더니티라고 이름 붙여 사용하는 역사적, 사회적 변화는 근대성이 가지는 시공간적 특성이나 신뢰, 그리고 성찰적 특성이 더 급진화된 국면이라고 해석”한다(이상헌, 1995: 241). 그리고 모더니티의 급진화의 바탕위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제기된 긍정적인 관점을 수용하려 하고 있다. 뒤에서 다시 언급되겠지만 포스트모더니즘 개념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문제설정은 앞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적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비판 사회이론의 향후 더 진전되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성과 이성의

타자인 욕망 등을 대립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적 구도 설정은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이성과 합리성이 거부되지 않고, 이성과 합리성 개념이 재구성되어야 하고, 이성과 욕망의 관계도 재설정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앞으로 철학이 다루어야 할 중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고, 다른 자리에서 고찰하게 될 것이다. 이 자리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 사회이론으로서의 합리적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 문제로 돌아오도록 한다.

4. 탈산업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계보학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개념적 규정이 모더니티의 논리와 혼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엄밀하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포스트모더니즘과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현대사회의 변동에 대한 다른 개념들과 비교하면서 그 차별성을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후반기에 서구 사회는 급격한 변동의 물결에 휩싸이게 되고 다니엘 벨의 “탈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를 필두로 하여 새로운 사회의 유형을 규명하는 무수히 많은 개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이 개념들을 각 개념들이 전제로 삼고 있는 사회변동의 논리적 기준에 따라 탈산업주의(Postindustrialism)와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²⁾의 두 경향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탈산업사회는 다니엘 벨의 개념이지만, 이후 그와 동일한 방법론적 전제에 서서 사회변동과 미래를 설명하는 여러 새로운 개념들이 발전되기 때문에, 탈산업주의를 이 이론적 경향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은 탈산업주의와 동일한 논리적 궤도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대립된 경향이다. 여러 학자들이 이 점을 혼동하였지만 이는 두 개념이 성립

2)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에 따라 postindustrialism은 탈산업주의로 post-modernism은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번역하였음.

되는 이념적, 역사적 계보학을 보면 잘 드러난다. 탈산업주의는 모더니티의 논리에 의거하여 사회변동을 설명하면서 현대사회가 합리성의 진보를 통해 획기적으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임으로써 모더니티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경향이다. 이에 반해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티의 한계와 억압성을 비판하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조건을 추구한다는 취지에서 ‘탈’을 표방한다.

1970년대에 미국과 서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던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컴퓨터에 의한 기술 변동이 초래하고 있는 산업구조상의 일련의 변화에 주목하여 다니엘 벨은 현대사회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사회로부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탈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로 옮겨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벨의 탈산업사회론은 존 나이스빗의 ‘메가트렌드(Megatrend)’와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The Third Wave)’과 같은 후속적인 개념들을 통해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 널리 확산된 ‘지구화’와 ‘정보사회(또는 지식기반사회)’와 같은 이론에 이르고 있다. 탈산업주의의 경향에 속하는 이론들에 공통된 특징은 현대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새로운 사회를 산업사회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사회적, 문명적 차원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인간들이 바라던 여러 가치들이 실현되는 유토피아적 세계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벨은 탈산업사회를 경제적 생산성의 비약적 발전에 의한 물질적 풍요의 실현, 육체노동으로부터 정신노동으로의 이행에 의한 직업적 만족의 향상, 무정부적인 자유시장으로부터 계획적 조절 사회로의 이행, 사적 이해의 에토스로부터 공동체적 생활양식에서의 전환이 성취되는 사회로 그리고 있다. 정보사회란 표현을 창안한 장본인이기도 한 요네지 마수다는 21세기 정보 사회의 비전을 ‘컴퓨터토피아(computopia)’로 제시한다. 미래 정보사회는 자동화에 의해 개인들이 노동의 필요에서 해방되며, “계급 없는 사회, 지배적 권력에서 해방된 사회, 사회의 핵심이 자발적 커뮤니티인 사회가 될 것이다.” 컴퓨터-통신 기술은 중심화된 정치와 관리 없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대신 참여적인 민주주의와 지역적인 ‘시민적 관리 체계’가 나타날 것이

다(Masuda, 1985: 625~632).

탈산업주의는 크리산 쿠마르가 지적하고 있듯이 모더니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계몽주의의 전통위에 서있다. “서구 사유의 자유주의적, 진보주의적 전통과 접맥되어 있다. 그것은 합리성과 진보에 대한 계몽주의적 믿음을 견지하고 있다”(Kumar, 1995: 3). 탈산업주의는 사회적 합리화가 역사적 진보를 가져온다는 계몽주의의 논리에 서서 20세기 후반기의 ‘정보’ 기술적 변동으로부터 유토피아적 세계로의 진보라는 미래 예측을 도출해낸다. 지배적인 산업형태가 정보산업으로 옮겨갔지만, 탈산업주의는 산업주의와의 역사적 단절이 아니라, 산업주의의 합리성 논리의 확장이자 강화에 불과하다. 그리고 탈산업주의는 모더니티의 논리가 강화되고 있는 현대의 연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탈산업주의에서의 ‘탈’이란 표현은 그 취지가 무색해진다. 탈산업사회, 지구적 공동체,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유형의 사회가 아니라, 산업사회의 내적인 변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의 내적인 모순과 야만 또한 그대로 온존하고 있다. 탈산업주의에 속하는 여러 사회 이념들은 현대 서구사회가 복지국가 자본주의체제로부터 신자유주의체제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 등장한 것으로 신자유주의체제를 정당화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최신 이데올로기”(Kumar: 31)에 불과하다.

체제 정당화 이데올로기로서 탈산업주의란 스크린에 비쳐진 이미지 뒷면에 1960년대 이후 서구사회에서 진행되어온 사회변동의 실제적 현실, 오늘날 뒤늦게 신자유주의적으로 운위되고 있는 현실적인 모순들이 은폐되어 왔다. 노동의 재숙련화, 전문화를 통한 ‘지식 노동자’의 증대, 정보산업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경제적 생산성의 발전과 물질적 풍요의 실현과 같은 경제적 예언들과 달리 만성적 대량실업, 광범위한 탈숙련 저임금 노동, 비정규직과 임시직,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빈곤의 심화, ‘이중 도시’가 실제적 현실이었다.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민주주의의 강화와 공동체 사회화가 아니라, 대중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심화되는 판옵티콘, ‘감옥 도시’, 대중의 사회적 불만과 갈등의 증폭이

실제적 현실이었다. ‘탈’산업주의로 위장된 산업주의, 수행성, 경제적 효율성, 도구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모더니티의 논리에 의해 초래되고 있는 현대 시민사회의 야만적 파괴가 20세기 후반기 이후 서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암울한 현실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티의 논리에 의해 초래되고 있는 사회적 병폐를 비판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런 한에 있어서 포스트모더니즘은 탈산업주의와 근본적으로 대립된 경향이치, 탈산업주의의 문화 논리로 간주될 수 없다. 포스트모더니즘도 탈산업주의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다. 비슷한 시기에 등장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접근하는 문제와 쟁점들이 서로 겹치기도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은 탈산업주의와 기본적으로 그 발생의 계보가 다르다. 탈산업주의가 계몽주의의 전통에 서 있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의 계보는 계몽주의를 비판한 니체와 하이데거 등 비합리주의의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푸코, 데리다, 들뢰즈 등은 이들의 이성 비판을 모티브로 하여 이성중심주의의 억압성을 비판해 들어가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적 논리를 발전시킨다. 이성을 인간의 자유와 해방의 보증자로 세워 놓은 현대 합리주의 철학 내에 구축되어 있는 이성의 지배적 기제를 해부하고, 이성에 의해 지배받는 이성의 타자들의 복권을 추구한다. 육체, 욕망, 인종, 종교, 젠더, 소수자, 자연 등 주체인 이성에 대해 객체로 취급된 타자들을 억압의 자리에서 자유의 자리로 올려놓을 조건을 추구한다. 바로 이 조건이 ‘포스트모던적 조건’이자, 포스트모더니즘의 합리적 핵심이다.

현대 시민사회를 야만적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모더니티의 논리에 대해 이에 대립되는 포스트모더니티의 논리는 단적으로 어떻게 제시될 수 있을까? 푸코의 ‘존재의 미학’이란 개념이 그것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예술 작품이 될 수는 없습니까? 왜 램프나 집만이 예술적 대상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까?”(드레피스·라비노우, 1989: 332)라는 말 한마디에 포스트모더니즘의 합리적 핵심이 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푸코가 (그리고 그를 포함하여 포스

트모더니즘이) 이상으로 염원하는 세계는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예술작품처럼 아름답게 사는 세계에 있다. 그런 그의 이상을 푸코는 『쾌락의 활용』에서 ‘존재의 미학(aesthetics of existence)’(푸코, 2004: 27)으로 개념화했다. 푸코의 ‘존재의 미학’이 포스트모더니티의 논리라고 한다면, 이에 견주어 모더니티의 논리는 ‘존재의 경제학(economy of existence)’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³⁾

‘존재의 미학’이 현대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탈’ 현대의 이념이라고 한다면, 이에 반해 ‘존재의 경제학’은 오늘날까지 실제적으로 진행되어온 현대의 역사적 과정의 개념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푸코가 현대인의 삶이 예술작품이 될 수 없는가를 한탄했을 때, 이는 현대의 역사적 진행과정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겠다는 ‘존재의 경제학’만이 점철되어 왔을 뿐이라는 현대의 한계를 정확히 짚고 있는 것이다. 현대는 물질적 자기유지, 경제적 소유의 논리의 숨 가쁜 진행과정이었을 뿐, 그 과정 속에서 풍부하고 다원적인 미학적 삶의 실현은 배제되어 왔다. 돌아보면 현대의 역사적 형성과 함께 처음에 설정되었던 계몽의 기획은 ‘존재의 경제학’의 실현을 바탕으로 ‘존재의 미학’도 실현하는 포괄적인 기획이었다. 현대는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켜 이를 통해 인류에게 숙명처럼 지워져 있던 고된 노동과 경제적 곤궁으로부터 벗어나 물질적 풍요와 여유를 실현하고(물질적·경제적 해방),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철학, 문학, 예술 속에서 자아를 실현하는(정신적·문화적 해방) 시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현대의 실제적인 역사적인 진행과정은 그런 계몽의 기획과는 다른 길로 나아갔던 것이다.

3) ‘존재의 경제학’이란 개념은 푸코의 ‘존재의 미학’에 비추어 필자가 만들어 사용하는 개념임을 밝혀둔다.

5. 제임슨과 하비의 포스트모더니즘 비판에 대한 논평

제임슨은 이와 같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적 잠재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포스트모더니즘을 후기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 문화논리로 평가절하하였다. 제임슨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내용과 형식이 아도르노가 비판한 문화산업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도 아도르노와 마찬가지로 문화산업과 대중문화를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포스트모더니즘은 대중문화 비판에 있어 아도르노의 낡은 엘리트주의적 관점보다 더 급진적이고 민주적인 관점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 아도르노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대립적 구도에서 대중문화를 바라보고 있다. 고급문화는 셰익스피어나 바하와 같은 천재적인 예술가들에 의해 창조된 ‘진정한 문화(authentic culture)’이고 대중문화는 이런 진정성을 상실한 하위문화에 불과하다.⁴⁾ 문화산업은 유흥과 소비를 통해 대중들을 자본주의 체제를 고분고분 받아들이도록 묶어놓으며, 문화의 비판적 기능과 부정의 방식, ‘위대한 거부’의 기능을 박탈한다. 대중들은 즐길 거리를 ‘저항의식으로부터 도피’한다. “오락이 약속해 주고 있는 해방이란 ‘부정성’을 의미하는 사유로부터의 해방이다”(아도르노, 1995: 200). 아도르노의 대중문화비판의 입장에 서서 제임슨은 대중문화와 이 대중문화와 친화적인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비판적 거리’의 소멸을 주장한다.

그런데 대중문화는 대중의 저항의식을 마비시키는 지배이데올로기이기에만 한 것인가? 자본주의 체제에 비판적인 대중문화는 없는 것인가? 바로 이 물음이 포스트모더니즘이 아도르노와 제임슨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점과 갈라지는 지점이다. 1960년대 서구의 대항문화(anti-culture), 서구 대중의 저항의식을 고취시킨 밥 딜란과 비틀즈의 대중음악은 대중의 비판의식을 잠재우는 그런 대중문화가 아니라, 체제의 지배로부터 자유로

4) 그러나 누가 셰익스피어가 앤드루 로이드 웨버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는가? 누가 모차르트가 비틀즈보다 예술성이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가?

우며, 체제에 저항하는 비판적이고 해방적인 대중문화이다. 대중문화에서 ‘비판적 거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대중들의 문화가 가능하고, 또 있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표방하는 문화논리는 바로 이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대중문화의 논리이고, 이 비판적인 관점에서 대중의 비판의식을 무력화시키는 ‘일차원적’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후기자본주의의 문화논리’가 아니라, 후기 자본주의라 부르던 유연적 축적 단계의 자본주의로 수식하던지 간에 1960년대 이후 변화된 자본주의에 대한 급진적인 문화비판논리인 것이다. 제임슨이 언급했던 “아도르노가 열렬히 비난했던 문화산업”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현상이 아니라,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이 비판하고자 했던 것이다.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해야 하는 자본은 문화 영역으로까지 공간적으로 확장해 나간다. 이전에는 자율적이었던 문화영역이 자본의 논리, 효율성을 추구하는 모더니티의 논리에 지배되는 문화산업으로 변질된다. 할리우드 영화, 초국적 미디어 산업의 지배, 스포츠 산업 등은 자본의 이윤의 실현을 위한 공간으로, 대중을 자본주의 체제에 포섭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기능하며, 바로 이러한 문화공간에서의 모더니티의 논리에 대한 비판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취지이다. 푸코의 미시권력은 인간의 신체에 작동하는 규율권력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고, 들뢰즈의 욕망이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코드에 맞추어 길들어지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비판적 해부이자, 이 코드화된 욕망의 탈코드화를 모색하는 비판이론이다. 이는 바로 더 발전된 자본주의의 문화적 지배 양식에 대한 비판이다.

푸코의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 개념도 소자의 포스트모던 도시론 구성에 있어서 그 비판적인 함의가 충분히 드러나고 있지 못하다.⁵⁾ 헤테로토피아는 이질적인 것들(타자들)이 공존하는 이질적인 공간이다. “헤테로토피아는 하나의 실재 장소에 여러 공간들, 즉 그 자체로 양립 불가능

5) 이에 대해 상세한 논의는 즐고, 「공간적 선회: 도시연구의 신 패러다임」, 356~360쪽 참조.

한 여러 현장들을 병치시킨다. … 완전하고 정확하며 잘 배열된 우리의 공간이 흐트러지고 불완전하며 뒤범벅된 또 하나의 실재 공간이 되는, 즉 타자의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Foucault, 1986: 25~27; 소자, 1997: 29~30에서 재인용). 이 푸코의 헤테로토피아가 소자의 포스트모던 도시의 기본적인 의미로 수용되고 있다. LA는 이질적인 모든 것이 공존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포스트모던적 도시인 것이다. 그러나 타자들의 공존만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비판적 의미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는다. ‘차이의 공존’의 비판적인 핵심은 차이가 차별 내지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고, 다른 것들이 모두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에 있다. LA에 이주해온 여러 다른 인종의 이민자들이 인종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헤테로토피아가 아직 아니다. 이들이 인종의 차이를 넘어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게 될 때 이때 바로 헤테로토피아가 되는 것이다. LA에 여러 인종과 민족이 모여 살고 있지만, 이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배제되는 한 이는 아직 헤테로토피아가 아니며, 포스트모던적 도시가 아니다.

제임슨이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적 잠재력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하비는 이를 인정한다. 하지만 그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평가는 양극단을 동요한다. 진보성을 인정하면서도 또 다시 포스트모더니즘이 지향하는 ‘정치의 미학화’를 나치와 같은 반동적인 정치로 낙인찍는다. 앞에서 푸코의 ‘존재의 미학’의 개념에서 보았듯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지향점이 정치의 미학화에 있다는 것은 하비가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추구하는 도시공간은 (도구적) 합리성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해방된, 자율적이고 인간적이고 미학적인 도시공간이다. 그리고 이는 합리성이란 모더니티의 논리, 자본의 수행성의 논리의 억압성과 야만성으로부터 해방된 공간이다. 그런데 하비는 정치의 미학화는 불가피하게 반동적인 정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는다.

하비의 이 양극단을 동요하는 양가적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주지하다시피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적 원천이 니체와 하이데거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니체와 하이데거가 나치즘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 또한 나치적 경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단정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니체의 ‘힘에의 의지’ 개념은 주인의 노예 지배를 정당화하는 귀족주의의 논리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히 있다.⁶⁾ 그러나 푸코와 들뢰즈의 니체 해석은 ‘전복적인 해석’, 주인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귀족주의적 논리를 뒤집어 주인의 지배로부터 노예의 복권을 개념화하는 민주주의적인 논리로 전화되어 있다. 『감시와 처벌』 등 푸코의 전 저작은 ‘다수’에 의해 배제된 ‘소수자’의 권리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맞추어져 있고, 들뢰즈의 『니체와 철학』은 니체 사상을 노예의 복권을 개념화하는 민주주의적 논리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반동적인 정치라는 단정은 니체 철학에는 해당될지 모르나, 포스트모더니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헤겔의 손에서 보수적이었던 변증법이 마르크스의 유물변증법으로의 전복적 해석을 통해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정치로 전화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니체의 ‘힘에의 의지’의 귀족주의적 논리는 포스트모더니즘에 와서는 민주주의적이고 급진적인 논리로 전화된다. 그리고 하비도 이미 인정하고 있듯이 포스트모더니즘은 실제적으로도 반동적 정치가 아니라 20세기 후반기 서구사회에 새로이 제기된 사회적 아젠다들에 진보적인 이론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치의 미학화’는 반동의 정치가 아니라, 민주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정치이다.

하비는 다른 글에서 포스트모던 정치가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빛고 있는 딜레마를 비판하고 있다. 하비는 1991년 9월 3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햄릿이라는 작은 마을의 닭고기 가공공장 화재사건을 사례로 들어 이러한 산업재해를 초래할 정도로 혹독해진 노역산업풍토를 조성한

6) 오늘날의 니체주의자들은 니체의 「힘에의 의지」의 원고들의 문헌학적 해석을 통해 「힘에의 의지」가 나치즘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힘에의 의지」가 책으로 편집되는 과정에서 나치즘의 경향과 부합하도록 왜곡되었다는 것이다.

자본들의 일관된 힘(오늘날의 표현으로는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의 자본의 공세)에 대해 포스트모던 담론들이 이에 대항하는 데에 얼마나 무력하게 되었는지를 비판하고 있다. 하비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 노동계급의 정치가 약화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를 “특수한 이슈들을 둘러싼 ‘진보적’ 정치의 파편화, 젠더, 인종, 소수민족, 생태론, 다문화주의, 공동체 등과 같은 주제들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신사회운동의 발흥”(하비, 1993: 47)에서 찾고 있다.

그런데 하비의 이러한 비판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적 조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우선 탈계급정치의 흐름은 비단 포스트모더니즘만이 아니라, 1970년대 서구 사회비판이론의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경제주의와 계급환원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흐름의 유행 속에서 마르크스주의도 국가나 문화와 이데올로기 비판이란 상부구조 영역의 이론화로 흐름을 바꾸었다. 그리고 이러한 탈계급정치적인 경향은 완전고용, 실질적 소득의 증대 등을 통해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에 포섭되는 복지국가 자본주의란 시기적 조건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사회 진보 세력과 비판적 사회이론은 비판과 저항의 동력을 다른 데서 찾으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1990년대에 오면 이미 서구는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고 시기적 조건이 변화하게 되는데, 하비의 말대로 노동에 대한 자본의 공세가 파상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정치경제적인 계급정치의 아젠다의 복귀), 이런 변화를 탈계급적 정치의 틀에 쫓아 있던 신사회운동의 흐름은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적 조건의 변화는 포스트모더니즘뿐만 아니라, 비판 사회이론이 이 시기적 조건의 변화에 맞추어 재구성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이 기각되고, 다시 노동의 문제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이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 여성, 소수자, 문화산업 등 포스트모더니즘이 제기했던 아젠다들도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 문제들이 더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거꾸로 노동의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려된다. 그리고 21세기 사회의 변화 과정을 내다보면 미학주의 내지 문화주의는 앞으로 비판적 사회이론의 구성에 있어서 더욱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마르크스주의가 정치경제적 해방의 기획이라고 한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화적 해방의 기획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사회의 변화 과정은 문화적 해방을 단지 공상적인 염원을 넘어 비판적 사회이론이 풀어가야 할 실천적인 기획으로 현실의 문 앞에 세워놓고 있다. 이런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화합은 21세기 비판적 사회이론의 재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아리아드네의 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 마르크스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화합 그리고 비판적 사회이론의 새 전망

마르크스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화합과 21세기 비판적 사회이론의 재구성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포스트모더니즘의 문제설정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앞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적 잠재력을 밝히는 데에 집중하다보니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만이 부각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포스트모더니즘에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개념적 구도의 설정에 있어서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탈산업주의에서 ‘포스트’가 과잉이듯, 포스트모더니즘에서도 ‘포스트’는 과잉이다. 탈산업주의가 산업주의와 질적으로 다른 단계로의 이행이란 의미에서 ‘포스트’를 표방하려고 하나, 정보기술, 정보산업을 통해 산업의 형태는 변화하였을지는 모르지만, 산업주의의 근간인 모더니티의 논리는 연속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도 ‘포스트’에 대한 과잉 욕망 때문에 너무 많이 나가버렸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성과 합리성을 문제 삼으면서 이성 대 비이성, 이성과 이성의 타자들인 욕망, 육체, 감성 등을 대립시키는 구도를 설정한다. 그리고 이 구도 속에서 이성은 부정되어야 할 대상으로, 이성의 타자들은 복권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철학적으로는 현대 합리주의에 반대하면서 그 반대인 비합리주의의 경향으로 치달는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이성에 대한 거부감이 얼마나 극단적인지는 “합리성에 대한 편집증적 공포”란 표현이 잘 보여준다(켈너, 1995: 144). ‘아우슈비츠’로 상징되는 이성의 억압성과 야만성이 불러일으킨 이성에 대한 극단적인 원한감정이 포스트모더니즘으로 하여금 이성을 부정과 전복의 대상으로 설정하도록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현실성이 드러나게 된다. 육체나 욕망과 마찬가지로 이성도 존재의 한 양식인 한, 이성은 부정되거나 전복될 수 없는 것이다. 이성을 전복한다는 포스트모더니즘에 있어서의 ‘포스트’는 현실(reality)의 존재론적 한계를 넘어선 과도한 문제설정이다. 탈산업주의가 탈산업주의가 아니듯이, 포스트모더니즘도 포스트모더니즘일 수 없다.⁷⁾ 이성과 욕망의 관계는 대립과 부정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부정되어야 할 것은 이성이 아니라, ‘억압적’ 이성이다. 그리고 타자에 억압적이지 않은 이성이 모색되어야 하고, 더 이상 억압적이지 않은 이성과 욕망의 관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성의 부정 속에서 욕망의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억압적이지 않은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 욕망의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성 개념이 어떤 형태의 것이 될지는 아직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문제는 앞으로 철학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1960~1980년대에 시작된 현대 사회의 변동은 여러 부문과 영역에서

7) 탈산업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이란 개념이 이미 널리 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들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이란 표현을 계속 쓰더라도 적어도 개념적 구도가 재설정되어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비판적 사회이론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노동해방의 이념부터 현실 변화에 맞추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노동해방의 목표를 주로 사적 소유와 계급적 지배관계의 철폐에 맞추었다. 이런 노동해방의 형식적인 측면을 넘어서 노동해방의 실질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실질적인 측면이 담보되지 못하면, 형식적인 측면의 해방은 추상적이고 공허한 것으로 전락하게 된다. 자본과 노동의 지배 관계를 철폐하였다고는 하지만 현존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노동자들에 의해 부정되어버렸다. 정보화가 생산과정에 가져오고 있는 변화는 노동해방의 실질적 측면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만들고 있다. 정보기술을 통한 공장과 사무 자동화는 생산과정으로부터 인간의 노동을 밀어내게 하고 있다. 생산과정 속에서 인간의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감소되고 있고, 이것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의 해고와 실업,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총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노동 패러다임으로부터 탈노동 패러다임으로)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 점에서 그동안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자본론』의 한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의 왕국은 실제로는 필요와 외적 합목적성에 의해 결정되는 노동이 끝나는 곳에서 비로소 시작한다. 그것은 사물의 본성상 본래적인 물질적 생산의 영역 너머에 존재한다. ... 이것은 여전히 필연성의 왕국일 뿐이다. 이 필연성의 왕국 너머에서 자기 목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계발, 즉 참된 자유의 왕국이 시작된다. 그러나 자유의 왕국은 필연성의 왕국 위에서 이것을 기초로 하여서만 번성할 수 있다. 노동시간의 단축이 기본조건이다”(Marx, 1986: 828). 일자리 창출은 더 이상 해법이 아니다. 앙드레 고르의 주장대로 그 해법은 더 진보적인 데에서 찾아야 한다. 바로 노동시간과 일자리의 단축, 적은 시간 일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사회적 조건의 창출이다. ‘노동에 의한 소유’의 원칙으로

부터 노동과 소유를 분리하는 새로운 원칙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일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20세기 사회진보운동의 목표가 노동할 권리와 참정권의 쟁취에 있었다면, 이제 21세기의 목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노동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는 데에 있다.

이런 노동 해방, 정치경제적 해방의 재구성의 과제와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 21세기에는 문화적 해방의 과제도 또한 실질적이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자유의 왕국’의 시간은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 새로이 확보되는 자유의 시간이 개인들에게 자동적으로 자아실현의 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들에게 이 시간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이 함양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리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들이 사회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이 시간은 개인들에게 도리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1960년대 서구에서 노동시간이 단축되었을 때, 이미 그 부정적 양상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었다.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었는데, 늘어난 자기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사람들은 이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권태와 무료함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환각제 남용’으로 상징되는 일탈행위로 빠져버렸다.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인간이 인간답게 삶을 펼쳐나가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전사회적으로 대대적인 문화적 기획이 필요하다. 여기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론이 이 기획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포스트모더니즘의 작업이 주로 자본주의의 문화산업과 이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에 맞추어져 왔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비판의 수준을 넘어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론은 대중의 자율성과 창의성, 자아실현과 욕망의 향유를 가능케 하는 대안적 문화사회론으로 확장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경제적 해방의 기획이었던 마르크스주의와 문화적 해방의 기획인 포스트모더니즘은 그동안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

하고 복합적인 대안의 전망 속에서 새로운 화합의 길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Abstract

Postmodernism — the radical culturecritical logic of late capitalism

Lee, Seong-Paik

Postmodernism is the radical culture-critical logic of late capitalism. The rational core of the postmodernism lies in the critic on the logic of modernity, economical and instrumental rationality which causes the civilizational degradation and oppression in the modern society.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the postmodernism from the postindustrialism which is the continuation of the logic of modernity.

Keywords: postmodernism, marxism, postindustrialism, modernity, postmodern city

참고문헌

- 다니엘 벨. 2006. 『탈산업사회의 도래』. 김원동 외 옮김. 아카넷.
- 더글라스 켈너. 1995. 『탈현대의 사회이론』. 정일준 옮김. 현대미학사.
- 데이비드 하비. 1994.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희·박영민 옮김. 한울.
- 드레피스·라비노우. 1989. 『미셸 푸코; 구조주의와 해석학을 넘어서』. 서우석 옮김. 나남출판.
- 마뉴엘 카스텔. 2008. 『정보도시-정보기술의 정치경제학』. 최병두 옮김. 한울.
- 미셸 푸코. 2004. 『성의 역사-제2권 쾌락의 활용』. 문경자 외 옮김. 나남.
- 사스키야 사센. 1998. 『경제의 세계화와 도시의 위기』. 남기범 외 옮김. 푸른길.
-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2001. 『제국』. 윤수중 옮김. 이학사.
- 알렉스 캘리니코스. 1994. 『포스트모더니즘 비판』. 임상운 옮김. 성림.
- 에드워드 소자. 1997.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이무용 외 옮김. 시각과 언어.
- 이상현. 1995. 「자본주의 소비공간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세계화 시대 일상공간과 생활정치』. 한울.
- _____. 2006. 「포스트모더니즘과 계획의 미래: 합의와 탈주 사이의 왕복」. 《공간과 사회》, 제26호, 9~44쪽.
- 이성백. 1999. 「정보화의 사회론」.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문화와 철학』. 동녘.
- _____. 2010(a). 「공간적 선화: 도시연구의 신 패러다임-E. 소자의 포스트모던 도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시대와 철학》, 21권 3호, 동녘.
- _____. 2010(b). 「노동해방 이념의 재구성」. 《진보평론》, 46호, 메이데이.
- 이합 핫산. 2007. 『포스트모던 문화와 문학』. 정정호 옮김. 신아사.
- 임서환. 1995. 「데이비드 하비: 포스트모던 담론과 계급정치학의 수사」. 《공간과 사회》, 제5호, 72~94쪽.
-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1992. 『포스트모던적 조건』. 이현복 옮김. 서광사.
- 조명래. 2002. 『현대사회의 도시론』. 한울.
- 존 스토리. 2002. 『대중문화와 문화연구』. 박만준 옮김. 경문사.
- 질 들뢰즈. 2001. 『니체와 철학』. 이경신 옮김. 민음사.
- 최병두. 2002. 『근대적 공간의 한계』. 삼인.
- 프랑크 웹스터. 1997. 『정보사회이론』. 조동기 옮김. 사회비평사.
- 프레드릭 제임슨. 1989. 「포스트모더니즘-후기자본주의의 문화 논리」. 정정호·강내희 엮음. 『포스트모더니즘론』. 문화과학사.
- 한주연. 2003. 「에드워드 소자(Edward Soja)의 도시연구-로스앤젤레스와 탈근대적 메트로폴리스」. 《공간과 사회》, 제19호, 188~199쪽.
- M. 호르크하이머/ Th. W. 아도르노. 1995. 『계몽의 변증법』. 김유동 외 옮김. 문예출판사.

- Foucault, M. 1984. "Space, Knowledge, and Power." in Rabinow, P. (ed.). *The Foucault Reader*, New York, pp.239~256.
- _____. 1986. "Of Other Spaces." *Diacritics* 16, pp.22~27.
- Gorz, Andre. 1999. *Reclaiming Work: Beyond the Wage-Based Society*. Cambridge.
- Harvey, David. 1993. "Class Relations, Social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in Keith, M./Pile, S. *Place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London.
- Kumar, Krishan. 1995. *From Post-Industrial to Post-Modern Society: New Theories of the Contemporary World*. Oxford.
- Marx, Karl. 1986. *Das Kapital—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Bd. III: MEW Bd. 25. Berlin.
- Masuda, Y. 1985. "Computopia." in Forester, T. (ed.). *The Information Technology Revolution*. Oxford.
- Soja, Edward. 1995. "Postmodern Urbanization: The Six Restructurings of Los Angeles." in: Watson, S./ Gibson, K(ed.). *Postmodern Cities & Spaces*. Cambridge.